

수능완성 읽기

안녕하세요, 김양봉입니다.

국어 공부를 혼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수능완성 읽기’라는 제목 그대로 그냥 수능완성을 읽을 계획입니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이런 단어, 저런 문장에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지. 또 어떤 부분에서 힘을 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힘을 빼고 읽어도 괜찮은지 등등 지문 분석이나 해설이 아니라, 제가 지문을 읽을 때 사고의 흐름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다음 규칙을 바탕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1. 한 번에 최대 두 문장까지만 읽고 작성한다.
2. 한번 작성한 내용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 (오타 수정 제외)
3. 사후적으로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내용이 체계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로 읽으면서 제 생각을 보여드리기만 할 거거든요.

당연히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겠지만, 규칙에 따라 수정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건 그저 수년간 많은 글을 읽고 많은 문제들을 풀어오면서, 또 직접 문제를 출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독해 도구나 방법론에 대한 암기 없이, 그냥 가볍게 저와 함께 수능완성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통해 지문에서 등장했던 논리, 배경지식, 연계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피드백은 자료의 내용, 구성, 형식 등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든 언제나 감사히 받겠습니다.

수능완성 읽기

[1문단-1]

유학은 중국의 오랜 전통인 예(禮)라는 ㉠규범 안에 ㉡인(仁)을 배치하면서 탄생했다.

인 in 예 => 유학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지문이 설명하고 싶은 것이 유학일지, 예일지, 인일지 아직 파악할 수는 없으니 모두 후보로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1문단-2]

공자는 <사람의 올바른 행동>은 강제된 행동이 아니라, <‘인’이라는 도덕적 진정성>으로부터 저절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았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요. 이건 강제된 행동이 아니라, 저절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라고 하네요. 무엇으로부터? <‘인’이라는 도덕적 진정성>으로부터.

일단 인이 먼저 나왔네요. 그럼 위 내용을 인의 입장에서 다시 서술해볼게요.

인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올바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도덕적 진정성이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1문단-3]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유학은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정감(情感)>에 주목했다.

‘정감’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하니까 당연히 뒤에서 더 설명해주겠죠? 일단은 ‘아, 정감이라는 애가 있구나.’하고 어떤 애인지는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정감에 대한 정보는 ‘인간의 행동을 일으킨다.’ 정도입니다.

[1문단-4]

『예기』에서 언급한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의 <일반 정감을 가리키는 칠정(七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정감을 일곱 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계속해서 정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정리하죠.

정감 =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것

칠정 =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일곱 가지 정감

[1문단-5]

여기에서 나아가 맹자는 선천적인 일반 정감에서 ㉠사람이 지닌 선함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공자에 이어 맹자가 등장합니다.

‘선천적인 일반 정감’을 풀어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정감’이겠죠. 그리고 칠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정감’이었구요. 그러니 이 둘을 비슷한 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문장을 볼게요. 선천적인 일반 정감에서 사람이 지닌 선함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선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배경지식을 활용하게 될 것 같아서, 멈추는 게 낫겠네요.

[1문단-6]

그는 다른 이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자기 것인 양 느낄 수 있는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 즉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자가 불인인지심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네요.

불인인지심

=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 일처럼 느끼는 것

=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

=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음

뉘앙스가 막 뭔가 선하고, 착하고 그런 느낌이죠?

[1문단-7]

이를 구체화한 것이 사단(四端)*인데, 인간에게는 선하게 될 가능성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불인인지심을 구체화해서, ‘사단’이라는 개념을 또 제시했습니다. 윤리와 친한 분들에게는 익숙한 단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지문 마지막에 설명이 있으니 읽어보시구요.

사단이 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사단이 지니는 의미가 더 중요한가 봅니다. 그러니 사단이 뭔지, 뭐가 있는지 이런 건 지문 마지막에 작게 설명해두고, 지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불인인지심 -> 사단 : 인간에게는 선함의 가능성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

[2문단-1]

주자는 형이상학적 이론화를 통해 <맹자가 제시한 사단>을 객관화하고자 했다.

한 명 더 나오네요. 이번엔 주자입니다.

공자: 사람의 올바른 행동은 인으로부터 저절로.

맹자: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함의 가능성을 가짐.

주자: 사단을 객관화 시도 by. 형이상학적 이론화

지금까지 각 인물에 대한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 문장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형이상학적 이론화’가 정확히 뭔지, ‘사단을 객관화’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딱 표면에 드러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주자, 형이상학적 이론화, 사단을 객관화.

[2문단-2]

©선한 정감을 사람만의 특징으로 규정했던 맹자의 입장을 벗어나, 우주 전체의 보편적 이치로부터 객관적인 설명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람... ‘객관적인 설명을 시도’라는 표현을 보니 우선 [2문단-1]에서 나왔던 ‘사단을 객관화’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맹자: 선한 정감은 사람만의 특징임.

주자: 그거 아님. 제가 ‘우주 전체의 보편적 이치로’ ‘객관적’으로 설명해드릴.

그럼 이제 우주 전체의 보편적 이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활용한 객관적인 설명이 나와야겠죠?

[2문단-3]

주자는 <세계가 음(陰)과 양(陽)의 변화로 이루어진다는 음양론>을 바탕으로/ 모든 것은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계속해서 변하지만 ‘변한다는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그 사실 자체’는 영원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한 문장 더 볼게요.

[2문단-4]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면서 만물을 변하게 하는 이치를 리(理)로, 변화하는 물질적 속성을 기(氣)로 규정하고, ‘리’와 ‘기’가 합쳐져 삼라만상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배경지식이 있으면 읽기 편한 부분이네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리: 만물을 변하게 하는 불변의 이치

기: 변화하는 물질적 속성

리+기 = 삼라만상이 생성되고 변화함

이렇게 지문에서 설명한 내용만 그대로 머릿속에 넣고 갈게요.

[2문단-5]

따라서 ‘리’는 ‘기’를 통해 드러날 뿐이며, ‘기’는 ‘리’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아주 약간 생략된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배경지식이 없다고 가정하고 잠깐 생각해보죠.

‘리’는 이치입니다. 이치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겠죠? 반면 ‘기’는 물질적 속성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직 ‘기’를 통해서만 ‘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는 ‘변화하는’ 물질적 속성입니다. ‘이’는 ‘만물을 변하게 하는’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는 ‘리’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겠죠.

[2문단-6]

이에 따라 사람의 마음 역시 사람이 사람일 수 있게 하는 ‘리’, 즉 사람의 본성인 성(性)과 그것을 마음의 활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기’가 합하여 정(情)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된다고 설명했다.

[2문단-2]에서 사용한 표현인 ‘우주 전체의 보편적 이치’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 같네요.

사람의 마음 = 성(리) + 기 = 정

[2문단-7]

그리고 주자는 맹자의 성선론(性善論)에 근거하여 우주의 보편적 질서인 '리'가 사람에게 '인'과 의(義)와 같은 선한 본성으로 주어졌다고 보았다.

'성선론'이 무엇인지 몰라도, 여기까지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며 따라왔다면 추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性)의 한자가 이미 [2문단-6]에 등장했고, 맹자는 '인간에게는 선하게 될 가능성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했었죠. 론(論)은 '이론' 할 때 그 론이구요.

또한 이 문장의 뒷내용을 보면 맹자의 성선론 =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본성 = 리(인, 의)

[2문단-8]

따라서 사단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본성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정감이 된다.

쭉 읽어보니 주자와 맹자의 견해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생각했고, 그 선한 본성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사단이다.

다만 맹자는 이 논리를 인간에게만 포커스를 맞췄고, 주자는 이게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주의 이치가 그래서 인간도 그런 거다. 하는 식으로 세계관을 키운 느낌?

3문단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대하며 넘어가겠습니다.

[3문단-1]

하지만/ 선한 정감인 사단과 일반 정감인 칠정의 관계는 주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지문에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나 보네요.

“사단과 칠정의 관계”

주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는 이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인물과 그 내용이 나오겠죠? 또한 앞으로의 포커스는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맞춰야 한다는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꽤 귀한 문장입니다.

[3문단-2]

이에 대해 ㉠이황은 사단은 '리'가 발현한 것으로, 칠정은 '기'가 발현한 것으로 정리했다.

배경지식은 모두 버리고 읽는 중입니다!

우선 이황에 ㉠이 있는 걸 보니, 사단과 칠정의 관계

에 대해 설명한 인물이 이황 외에 더 제시될 것이고, 해당 인물에게는 ㉡이 붙어 있을 것이며, ㉠과 ㉡의 견해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고 합니다.

사단 = '리'의 발현

칠정 = '기'의 발현

[3문단-3]

'성'은 선하기 때문에 사단의 근거가 되지만, 칠정 속에는 선한 정감뿐 아니라 사욕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비도덕적 행위는 칠정에서 비롯한다고 본 것이다.

이황에게 '성', 그러니까 '리'는 사단의 근거이자 절대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칠정은 선하기만 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저지르는 비도덕적 행위들은 모두 칠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단 = '리'의 발현 / 선

칠정 = '기'의 발현 / 선 + 악

[3문단-4]

이황은 ㉢이러한 이유에서 사단과 칠정을 분리해서 이해하고, 사단을 '리'에, 칠정을 '기'에 대응시킨다.

나중에 제시될 인물이 누군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대해 이황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독서 지문이니깐요.

그러니까 이황이 아닌 그 누군가는, 사단과 칠정을 분리해서 이해하고 사단-리, 칠정-기를 짝지은 이황과는 다를 겁니다. 통합해서 이해하든가 적절히 섞든가 하겠죠.

[3문단-5]

사단과 칠정을 분리하여 악한 정감을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황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제시됩니다.

이렇게 확실히 나눠야 악한 정감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알 수 있고 이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단과 칠정을 분리해서 이해함으로써 '악한 정감을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을 칠정으로 한정하는 거죠.

[3문단-6]

이에 대해 ㉠기대승은 사단도 정감이기 때문에 ‘기’의 영역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사단이나 칠정 모두 ‘리’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 예상대로 ㉠기대승이 등장했습니다.

앞에서 제시된 이황의 견해와 비교합시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분리하여 각각 ‘리’, ‘기’에 대응시켰습니다. 하지만 기대승은 사단은 ‘리’는 물론 ‘기’와도 관련이 있고, 사단과 칠정 모두 ‘리’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고 했네요.

표로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겠죠.

| | | |
|-----|-----------|-------------|
| | 사단 | 칠정 |
| 이황 | ‘리’ / 선 | ‘기’ / 선 + 악 |
| 기대승 | ‘리’ + ‘기’ | |

앞서 1, 2문단에서 등장했던 맹자-주자의 관계와 이황-기대승의 관계는 다르다는 것을 짚고 넘어갈게요. 주자는 맹자와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며 더 넓게 본 느낌이려면, 기대승은 이황의 견해를 비판했다고 했으니까요.

[3문단-7]

사단과 칠정 모두 정감인 이상 ‘리’와 ‘기’의 결합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대승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단이랑 칠정 모두 인간이 가진 정감인데 왜 하나는 ‘리’의 발현이고 하나는 ‘기’의 결합입? 둘 다 그냥 ‘리’+‘기’로 봐야지.”

현재 저의 포커스는 ‘사단과 칠정의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대한 이황과 기대승의 견해’입니다. 그러니 딱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4문단-1]

이황과 기대승의 입장 차이는 수양의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로 나타났다.

포커스를 바꿀 때가 왔나 봅니다.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대한 이황과 기대승의 견해
-> 수양 방법에 대한 이황과 기대승의 견해

나중에 혹시나 누가 “이황과 기대승의 수양 방법에 대한 견해는 왜 다른 거야?”라고 묻는다면, “그 둘은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었거든.”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4문단-2]

이황은 기대승의 비판에 대해 사단이 ‘기’와 관련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리’인 ‘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데 치중했다.

이황은 일단 인정은 했대요. 사단이 ‘리’뿐만 아니라 ‘기’와도 관련이 있다는 걸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 주장을 버리지 못하고, 사단과 ‘리’(성)의 관련성을 검증하려 했다고 합니다. 뭘 인정했다는 거지?

아참 그리고 [2문단-6]에서 깜빡한 내용인데, 당분간 별다른 언급이 있을 때까지 리=성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문을 읽겠습니다. ‘리’가 인간에게 적용된 것이 인간의 본성인 ‘성’이다, 라고 이해했거든요.

[4문단-3]

도덕 수양을 위해 집중해야 할 공부의 대상을 ‘성’에서 사단으로 이어지는 곳에 설정함으로써, 칠정은 자연스럽게 제어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자, 또 나왔습니다. 책갈피 역할을 하는 생소한 표현이요. 다만 이번에는 조금 깊게 봐야 해요. 이 문장까지 읽었을 때 제 사고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어지는 곳에 설정함으로써’

-> 곳?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앞에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어’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

-> 제어? 생소하면서도 앞에서 본 단어인데?

그 결과, [3문단-5]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단과 칠정을 분리하여 악한 정감을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물론 ‘곳’과 ‘영역’, ‘제어’라는 세 가지 단어만으로 저 문장을 떠올리는 것은 약간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어가 아닌 문장에 녹아든 대비되는 논리를 볼게요.

[3문단-5]의 해설에서 저는 ‘악한 정감을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을 칠정으로 한정’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 문장에서는 ‘도덕 수양을 위해 집중해야 할 공부의 대상을 사단 쪽에 설정’한다고 했어요.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어할 영역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칠정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단은 제어나 통제의 대상이 아닌 도덕 수양을 위해 집중해야 할 공부의 대상으로 표현했

구요. 다음과 같은 구조가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죠.

칠정: 악한 정감을 제어할 수 있는 영역
사단: 도덕 수양을 위해 공부해야 할 곳

‘도덕 수양’이라고 하면 뭔가 선하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 이미지와 ‘악한 정감’이 대조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이런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3문단-5]의 문장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4문단-4]

즉 사단을 <악함의 가능성을 지닌 칠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리’가 ‘기’를 선택적으로 제어하고 조절하는 능동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황은 사단을 칠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았으니, 칠정: 악함의 가능성을 지님.
사단: 악함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으로 선한 것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죠?

여기에 추가로 ‘리’는 능동성을 지니고 있어 ‘기’를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정보까지 체크합니다.

[4문단-5]

이에 따라 이황은 ㉠‘성’이 그대로 사단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성’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경(敬)의 자세를 중시했다.

아, 맞다. 우리 지금 ‘수양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었죠.

이황이 제시한 수양 방법이 바로 ‘경’인가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래요.

성은 우주의 보편적 질서인 ‘리’가 인간에게 깃든 것이자, 절대적으로 선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잘 발현되기만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구요. 그러니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타고난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해서 사단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황이 중시했던 경의 자세라고 이해했습니다.

[4문단-6]

‘리’가 그대로 정감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사적인 욕망이 끼어들지 못하게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앞 내용과 연결해 볼게요.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감입니다. ([3문단-7])

그중 사단은 ‘리’가 발현된 것이구요.

그러니 이 문장에서 말한 대로, ‘리’가 그대로 정감으로 발현된다면? 바로 사단이 되겠죠.

이건 다시 [4문단-3]과 연결됩니다.

이황은 공부의 대상을 ‘성’에서 사단으로 이어지는 곳으로 설정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은 ‘리’로 바꿀 수 있구요. 즉, ‘리->사단’에서 이 화살표 부분을 공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결국 이황이 말하는 수양, 즉 경이란 ‘성’이 사단으로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사적인 욕망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마음을 경건히 하는 것이다. 정도네요.

이렇게 4문단이 끝났으니, 5문단에서는 기대승이 주장한 수양의 방법에 대해 다루겠죠.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찾으려 하며 읽어 봅시다.

[5문단-1]

하지만 기대승은 원론적인 주자학의 입장에서 능동적 속성은 ‘기’의 영역이라는 전제 아래, 만약 ‘리’에서 나오는 정감과 ‘기’에서 나오는 정감을 별개로 본다면 마음속에 두 종류의 정감이 존재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벌써 다른 점이 있네요. 이황은 ‘리’가 능동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는데, 기대승은 능동적 속성이 ‘기’의 영역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조금 바꿔 볼게요.

‘리’에서 나오는 정감 = 사단

‘기’에서 나오는 정감 = 칠정

이렇게요.

근데 기대승은 이것 별개로 보면 안 된다고 했구요.

[5문단-2]

사단이 선함이고, 칠정이 선함과 악함을 모두 가졌다면 마음속에 근원이 다른 두 개의 선함이 존재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앞에서 표로 정리했던 내용이죠?

| | 사단 | 칠정 |
|-----|-----------|-------------|
| 이황 | ‘리’ / 선 | ‘기’ / 선 + 악 |
| 기대승 | ‘리’ + ‘기’ | |

기대승은 이런 이황의 주장이 모순이라고 봤네요.

<알아두면 좋은 내용>

['이'와 '기', 이기론]

사실 대한민국 수험생이라면 윤리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리', '기', '이기론' 등은 꽤 많이 접했을 겁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분량 인지라, 지문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다루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자세히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에 의해 여러 가지로 해석되기도 하고 다양한 사상에 은근히 묻어나기도 하는 개념이기도 해서 핵심적인 논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철학 수업이 아니니까요.

'이기론'이라는 이름처럼 '이'와 '기'에 대한 이론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질료 개념과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해요.

지문에 제시된 내용대로 '이'는 뭔가 절대불변의 이치.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 이런 느낌입니다. '기'는 물질적인 것. 지문 해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느낌의 개념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오묘합니다. 서로 확연히 구분되면서도 서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는 '이'이고 '기'와 섞일 수 없으며, '기'는 '기'일 뿐 '이'와 섞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없이는 '기'도 없고, '기' 없이는 '이'도 없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비유라던가, 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게 킨드레드 밖에 없네요.

'이'와 '기'라는 개념 자체도 자주 등장하며, 이와 유사한 개념이나 논리도 독서 지문에서 종종 등장하는 편이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조금 친숙해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5문단-3]

기대승은 마음은 '리'와 '기'의 결합이라는 주자학의 원칙을 바탕으로 정감은 모두 '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다.

마음은 '리'와 '기'의 결합이다. 이 내용을 우리는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2문단-6]이네요. 이게 주자학의 원칙이었는데, 기대승은 이걸 계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기대승에 따르면, 정감은 모두 '성', 즉 '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단과 칠정이 모두 '리'의 발현이라는 거죠. 둘의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5문단-4]

따라서 '성'은 칠정으로 발현되는데/ 문제는 <칠정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단이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칠정 그 자체를 제어하여 사단이 되도록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는 성의(誠意)를 강조했다.

이황은 '성'이 발현하면 사단이, '기'가 발현하면 칠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승은 '성'이 칠정으로 발현되고, 이 칠정을 제어하여 사단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했네요.

수양 방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황은 '성'이 사단으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자. 기대승은 칠정을 잘 제어하여 사단이 되도록 하자.

두 사람 모두

- 1) 칠정을 제어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고
- 2) 사단은 잘 발현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5문단-5]

또한 마음 그 자체에 집중하는 수양보다는 경전 공부 통해 성현들의 행동을 익혀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에 이렇게 짧게 한 줄 추가한 걸 보니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닌가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 그 자체에 집중하는 수양'은 이황이 주장한 경을 말하는 거겠죠.

<포커스 이동>

맹자 -> 주자 -> 이황 vs 기대승
인 -> 정감 -> '리'와 '기' -> 사단 칠정 -> 수양론
이상 읽기를 마치겠습니다.